

### 의정부 선재동자원 누전으로 전소

## “스님아빠! 우리 어디서 자?”

“스님아빠, 우리 이제 어디서 자?” 두현(10)이가 천천히 눈망울로 지산 스님을 쳐다본다. 두현이 손을 꼭 잡고 꼭꼭 맞은 듯 양상한 전해만 남은 법당건물을 바라보는 스님은 가슴이 미어진다.

의정부시 호원동에 자리 잡은 선재동자원은 오갈 곳 없는 어린이와 초·중·고 대학생 68명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런 선재동자원에 8월 21일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조립식 기건물로 된 2층 법당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삼시간에 1층까지 번져 선재동자들의 보금자리를 집어 삼켰다.



◁화재로 집을 잃고 텐트생활을 하는 선재동자들에게 지산스님이 과자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젓더미로 변한 1층 선재동자들의 보금자리는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타다만 경전 옆으로 아기공룡 인형만이 아무렇게나 나뒹군다. 당시의 참상이 흉물스럽게 남은 건물 전체

사이로 생생하게 전해진다. 두현이와 같은 포래인 용진(10)이는 그래도 제법 의젓하다. “불이 났을 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스님 아빠가 그러는데 부처님이 항상 우리를 돌봐 준대요.”

내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지용(13)이는 이제 철이 다 들었다. “동생들이랑 형들이랑 비좁은 식당에 서 지내지만 서로 잘 돌봐주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서 하나도 불편한지 모르겠어요”라며 씩씩하게 말

### 텐트·비좁은 식당서 일주일째 임시거처 요사채 공사 3개월째 중단 완공 기약없어

한다.

스님은 벌써 일주일째 텐트와 비좁은 식당건물에서 생활하면서도 밝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잃지 않는 선재동자들이 대견하기만 하다. 그러나 스님의 이마에는 며칠 새 주름이 하나 더 늘었다. 제 방을 화마에 내준 뇌성마비 장애인 정자(13)가 풀이 죽어있어서다. 한증막 같은 텐트 안에서 장난감만 만지작거리는 정자를 스님은 차마 보지 못한다.

더구나 올 초파일 이후 짓기 시작한 요사채 건물은 벌써 3개월째 공사가 중단돼 있다. 후원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공사를 시작했지만 들쭉날쭉한 후원금 때문에 언제 완공될지 기약이 없다. 또 비인가 시설이라 정부 지원은 꿈도 꿀 수

없다.

“우리 천진불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라는 스님의 말에는 간절함마저 담겨있다.

27일에는 큰비가 왔다. 설상가상으로 쏟아지는 폭우에 스님은 한숨만 나온다. “잡랄 곳도 없는데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니 정말 난감합니다”라고 말하는 스님은 목이 맨다. 다만 스님은 68명 선재동자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불자들의 마음이 선재동자원으로 이어질 길 바랄 뿐이다. (031)876-2235, 제일은행 641-20-383234(예금주-선재동자원), 농협중앙회 552-01-022751(예금주-선재동자원)

의정부=이동혁 기자

##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맛이

### 불교노인복지시설 사랑의 송편나누기 무의탁노인·빈곤가정엔 쌀 등 생필품

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9월3일 복지관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고 포장한 송편을 5-7일에 걸쳐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서울시립은 평노인복지관도 8일 어르신, 청소년 봉사자,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국팔도 송편만들기’ 행사를 열고 무의탁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시간을 갖는다.

자비의 집은 1일 ‘송편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서 후원자와 불자들은 자비의 집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30여명 어르신들과 반찬배달을 받는 220여 저소득 가정에 손수 만든 송편을 전달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가위 맞이 ‘후원물품 나누기’ 행사도 전국의 각 복지관에서 열린다. 부산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은 4일, 물음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민)은 8일,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나태선)와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신)은 9월초에 각각 무의탁 노인들과 빈곤가정들을 대상으로 쌀과 라면, 생필품 등의 후

원물품들을 나눠주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원)와 서울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구자훈)은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9일 한가위를 맞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과 실형민들을 대상으로 ‘추석상 차리기’ 행사를 종료 중앙공원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5일 복지관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용과 민요공연, 차례상 차리기, 한가위 OX퀴즈, 한가위 노래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경남 거제 금강사주지 성원은 경상대 의류블자모임 ‘보련회’와 함께 7일 거제 수월초등학교에서 외국인 근로자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2백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에는 마당놀이 등 한마당 잔치도 함께 열린다.

성원 스님은 “타향에서 쓸쓸하고 외롭게 명절을 맞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혁 기자

### 불교TV 노조재설립

#### 위원장 이강훈차장 선출

불교TV 노동조합이 재설립 됐다. 불교TV 노조는 8월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불교TV 노조규약 37·38조에 의거, 이강훈 기술부차장을 위원장으로, 강영호 PD를 부위원장장으로 선출하는 등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노조는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불교TV는 신 사육(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전 후에도 별다른 발전사항을 보이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노·사가 화합하고 의논해 과거의 폐습을 타파하고 보이지 않는 불신분조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불교텔레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훈 불교TV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제기됐던 운영상의 문제점과 의혹들을 해소하고, 경영의 합리화와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희 기자

현대불교구독신청:02)737-8881

## “자원봉사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베세토 오페라단원들 음악회 열어 노고 위로

여성자원봉사자를 위한 이색적인 음악회가 열렸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원)는 8월 25일 복지센터 강당에서 베세토 오페라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을 열고,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준 여성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공연에서는 ‘희망의 나라로’ 등 주목할 만한 한국의 가곡들도 열창돼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베세토 오페라단 강화자 단장은 “항상 무대에서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는 것에만 익숙했다”며 “뜻깊은 성악인들이 모여 그간 받아온 사랑을 감동으로 사회에 돌려주자는 취지로 ‘찾아가는 오페라’ 공연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혁 기자



◁베세토 오페라단이 음성공양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환 기자

###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인왕, 영춘,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런 나눔 콜택시**  
**1588-5532**

### 기본교리 경진대회 열어 조계사 청년회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가 청년 법우들의 불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초를 다지기 위한 ‘기본교리 경진대회’ 예선전을 8월 27일 조계사 소실법전에서 개최했다. 대회에서 조계사청년회 각 부서별

로 4명씩 추천된 참가자들은 교재 및 불교 기본교양에서 출제된 단답형 주관식 50문제를 풀었다. 이 중 부서별로 점수가 높은 2명만이 30일 본선출전 자격을 얻었다.

정우식 회장은 “이번 대회가 선후배 법우들 간의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 완성을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 “자연공원 삭도설치 조계종과 협의를”

### 현고스님, 공청회서 밝혀

“1억여 평을 국립공원에, 2억여 평을 도립공원에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지만 어떠한 사회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삭도(케이블카) 설치 여부 및 기준에 대한 최대 이해관계 집단인면서 기여집단인 조계종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 스님은 8월 2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자연공원 삭도정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삭도 설치 여부 및 기준에 대한 조계종과 충분한 협

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여명의 환경관련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현고 스님은 “해상공원을 제외한 모든 공원은 문화재와 깊은 연관이 있다”며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시 문화재 보호법과 전통사찰 보호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삭도가 문화재나 수형환경보호에 도움되지 않지만 필요할 경우 환경 부담을 최소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등)를 위해 써야 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및 시식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백중천도시식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회법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곤지암 우리절

##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오후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멋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우리절을 사랑하시는 불자 여러분

##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